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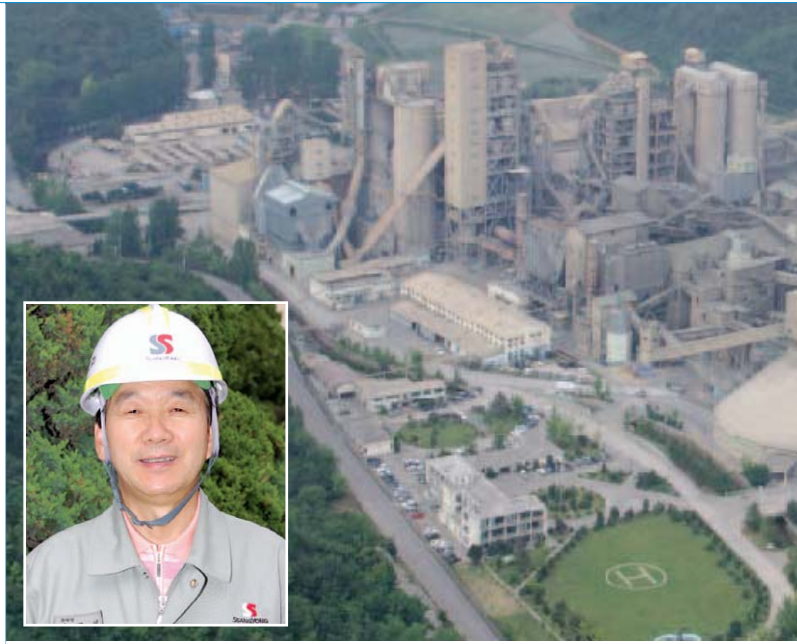
콘크리트보다 강한 안전을 만들어 가는 곳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영월공장

‘추적추적’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지루한 오후에 나른함을 부추긴다. 맑은 하늘이 그리운 요즘, 마음만은 시커먼 구름 위에 파아란 하늘을 그려보았으면 좋겠다.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 위치한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를 찾았다. 높다란 나무숲으로 포근하게 안겨있는 듯 한 모습의 이곳은 마치 거대한 로봇이 만들어지지 않는까 하는 신비로움이 느껴진다.

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영월공장은 1964년 당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준공되었으며, 연간 46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었다. 이 지역의 산세를



보면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‘쌍용리’라 하였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 ‘쌍용’이다. 올해로 창사 44주년을 맞은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건물들은 그 무던한 세월만큼이나 빛이 바랬지만 그 색깔은 자연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. 일찍이 환경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곳 영월공장 옆에는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가 있다. 한가로이 하늘을 유유히 노를 젓듯 날아가는 순백의 백로는 이곳의 자랑이기도 하다. 서식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월공장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. 이밖에도 페타이어, 폐유, 폐플라스틱 등도 소각시설을 시멘트 업계 최초로 도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친환경공장임을 자부하고 있다.

■ 원칙준수 체질화로 재해 ZERO 지속(안전캠페인)

이곳 영월공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‘원칙을 준수하자’이다. 경영방침의 하나이기도 한 원칙준수는 체질화를 통해 습관화시키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. 기본만 준수한다면 재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보고는



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. 이런 습관화를 위해서는 바로 투철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 생활 속 안전을 강조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 안전캠페인 활동을 함으로써 협력업체를 포함한 430여명의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8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특히나 정신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는 월요일 아침에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근본적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있다. 이제 목표 그대로 체질화에 가까워진 캠페인 활동은 년 52회 실시하고 있다.

■ 22년의 역사 위험예지훈련

1984년 노동부에서 도입한 위험예지훈련기법은 오늘날 대표적인 안전기법 중에 하나가 되었다. 영월공장에서는 1984년 이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안전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. 지금까지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험예지훈련기법은 그 역사만큼이나 탄탄하게 기초가 다져져 있다. 시멘트업체의 특성상 많은 기계

의 운전과 사용이 빈번하고, 이로 인한 경정비 빈도가 높다. 가장 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시기는 기계의 운전보다는 정비작업 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비작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에 일임하고 있다. 위험예지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철저한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의 활용법을 교육함으로써 지금은 그 활용이 99%에 가깝다고 한다.


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안전작업 표준서

이곳만의 자량이 있는데 바로 안전작업 표준서의 철저한 제작과 그 활용이다.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



안전작업표준서는 각 부서 안전분임조와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작업안전수칙, 사용공구명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현장 작업자가 직접 작성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시 활용하거나 모든 작업자가 안전작업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. 지금까지 총 587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안전작업표준서가 작성되었고, 지난해 전국 시멘트업종협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협의를 통해 시멘트 제조 공정의 표준서를 만들어 책자로 발간되기도 하였다.

■ 안전, 44년의 긴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

공장설립과 동시에 안전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 영월공장은 우리나라 안전의 산 증인이다. 1983년 65만 시간의 무재해 달성을 시작으로 2002년 1월에는 업계 최장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는 등 안전에 대한 영월공장의 노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. 2006년 새롭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·전개해 나감으로써 무재해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이곳 쌍용양회 영월공장, 안전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.  <임재근 기자>